

---

## 독버섯의 비밀

---

조 덕 현 (우석대학교)

### ∴ 환각성 독버섯

고대 인도의 경전에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환희에 가득 찬 찬가를 부르게 하는 물질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오랫동안 수수께끼였는데, 미국인 왓슨(R. G. Wasson)은 이 물질이 광대버섯임에 틀림없다는 설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전문 버섯학자도 아니고 버섯 애호가도 아니었다. 원래 그는 은행의 부행장까지 지낸 금융인으로, 전 세계에 ‘마법의 버섯’ 선풍을 일으키고 사라져버린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그가 버섯을 일생의 동반자로 택하게 된 동기도 남달랐다. 그를 유혹한 버섯의 매력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버섯에 대한 왓슨의 관심은 1927년 부부가 휴가를 즐기던 산장에서 시작되었다. 조용한 숲속의 좁은 길을 함께 산책하다가 그의 아내가 마른 낙엽이 깔린 곳에 무릎을 꿇고 야생 버섯과 흙냄새를 음미했다. 아내는 문태나 주에서 자란 러시아계 여성이었는데, 왓슨은 아내의 행동에 당황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사람들은 야생버섯에 대한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혐오하는 경향까지 있을 정도다. 반면에 유럽인들은 야생버섯을 맛보는 습관은 보통이고, 특히 슬라브계에는 버섯 애호가가가 많다. 아내는 차마 가

독 버섯을 따와  
저녁식사를 즐겼  
지만 왓슨은 독버  
섯의 공포로 떨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부  
부가 다른 나라에  
서 자랐기 때문에  
생기는 습관 차이  
라고 생각하고 말



《노란종버섯》

았겠지만, 왓슨은 이러한 문제가 버섯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왓슨은 민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버섯에 대한 생각을 각자의 마음에 새겨진 문화유산의 차이라고 해석하고, 각 민족의 전통문화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을 ‘민족균학’이라고 명명하고 바쁜 와중에도 연구를 계속했다. 마침내 그는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버섯을 먹고 환각 상태에 빠지는 무당이라는 존재가 기원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무당이 버섯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스러운 의식에도 참가하여 처음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 뒤 국제적인 조사대가 조직되어 여러 차례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미국, 멕시코의 버섯 연구가들에 의해 의식에 사용되는 버섯들이 조사되었다. 그 결과 의식에 사용된 버섯들이 독청버섯류와 소똥버섯류의 환각성 버섯임이 판명되었다.

1955년 6월 멕시코 남부의 작은 마을을 방문한 왓슨은 자진하여 환각을 일으키는 ‘신의 버섯’을 먹었다. 현지 사람들 속에 섞여, 버섯을 먹고 꿈과 환상의 세계에 도취되는 종교적 풍습을 체험한 그의 모험적인 보고는 ‘마법의 버섯을 찾아’라는 표제로 《라이프》지에 게재되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 후 프랑스의 저명한 버섯학자 헤임(R. Heim)과 함께 다시 그

곳을 방문한 왓슨은 자신이 채집한 환각성 버섯 가운데 일곱 개가 그때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버섯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왓슨은 지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버섯을 먹고 환각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사막 위를 날아다니면서 멀리 있는 대상(隊商, caravan)을 보았다고 한다. 환각성 버섯을 먹고 몽롱한 세계로 빠져든 상태에서 꿈꾸듯 체험한 이 현상이 어찌면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 이야기의 시초일지도 모른다. 그는 멕시코의 한 무당이 소리 내어 외는 주문을 들으면 분명히 환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느낌이 전해져 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958년 호프만(A. Hoffma)은 버섯에 포함된 환각성 물질이 실로시민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 구조도 밝혀냈다. 그는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밀에 생기는 곰팡이의 하나인 맥각균의 균핵에서 분리된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가 사람의 정신에 작용하는 것을 발견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LSD를 생성하는 것은 맥각균이지만 맥각균 외의 균류에도 환각 성분을 가진 것이 상당히 있다. 환각성 버섯을 단순히 독버섯으로 치부하여 쓸모가 없다거나 대단히 위험하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버섯은 인류의 역사에서 유용하게 이용되었고, 때로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의 일부에서는 지금도 환각성 버섯을 병의 치료나 종교 의식에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왜 환각성 버섯은 극히 위험한 물질로만 여겨지게 되었을까?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환각을 정신병의 한 증상으로 간주한다. 환각 자체를 정신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매우 위험한 병의 징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학계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환각성 버섯이나 식물을 유용하게 사용해 온 다른 문화나 사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전통 사회에서는 환각 체험도 현실을 구성하는 일부로 존재하기 때

문이다. 현대 의학이나 사회가 이제라도 전통적 치료 문화를 미개하다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배제하지 않고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로시빈(psilocybin)과 실로신(psilocin)은 단 10밀리그램으로도, 정신병 치료제로서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하여 4~6시간 지속된다. 실제로 많은 음악가와 화가들이 이 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학생과 히피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퍼져 결국 환각성 버섯 키트(KIT)까지 판매됨으로써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사용 방법에 따라 종교인들을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기를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이 되기도 한다. 기원전 3~5세기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번창했던 마야 문명의 멸망 원인을 이 버섯에서 찾는 이도 있다. 그래서 ‘성스러운 버섯’에 포함되어 있는 이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한 나라들도 많다. LSD와 실로시빈 등의 연구에 노력을 기울인 호프만은 자신이 발견한 이 약들을 ‘앞날이 걱정되는 아이 같은 것’이라고 불렀다. 대뇌 중추에 작용하는 이 물질에 대해 21세기 의학계는 어떤 연구 결과를 보고할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 ∴ 사람을 웃기는 환각버섯

환각버섯류 중 말뚝버섯들 중에는 신경을 자극하여 웃음이 나오게 하는 버섯이 있다. 성분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버섯은 신경계통에 작용하여 사람을 이상한 흥분 상태가 되게 한다. 기분이 좋아서 웃고 노래하는 등 약간 정신 이상을 보이다가 감각이 마비되기도 하지만, 생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하루쯤 지나면 완전히 회복되므로 무서운 독버섯은 아니다. 어떤 부족들에게는 일부러 이런 버섯을 먹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풍습이 있다. 추장들이 이러한 버섯을 이용하여 자신이 신이나 귀신과 직접 통하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과시함으로써 부족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이



### 《좀환각버섯》

섯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버섯을 먹으면 이상한 흥분을 일으키고, 기분이 좋아서 웃고 노래하고 약기를 울리며 미친 듯한 상태가 되기도 하며, 감각이 마비되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독버섯에 중독된 사람들을 웃고 떠들게 만드는 ‘웃음버섯’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버섯은 오직 산 속에만 있는 것인데, 대개 풀과 나무의 기름이 땅에 스며들어가 고택(膏澤)을 얻으면 생긴다. 경칩(驚蟄) 때에 나는 것은 이름을 뇌경(雷驚)이라 하는데, 무릇 희게 접히고 면(面)이 붉은 것이나 순백색인 것과 접힘이 없는 것은 찢더라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단풍나무에 나는 것을 소심이라 하는데 그것을 먹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이 그치지 않게 한다. 토장을 마시면 낫는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 조상들도 버섯을 좋아하여 즐겼으며, 그 부작용도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다.

### ∴ 환각의 세계로 이끄는 버섯

멕시코 원주민들은 환각 버섯을 신의 고기(Gods meat)라 부르며 종교적 의식에 사용하였다. 즉, 의식을 주관하는 족장들이 이 버섯을 먹고 무아지경에 빠져 자신을 신이나 죽은 사람과 연결시키는 예언자나 중개자로 생각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의식에서 이 버섯을

용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마약을 먹고 광란의 상태에 빠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실제로 파푸아뉴기니 원주민인 구마족은 광란상태의 축제 때문에 환각 성분을 가진 버

먹고 흥분하여 영  
혼들을 위로하는  
행동이나 춤을 추  
었다. 이 버섯들  
은 주로 환각버  
섯속(Psilocybe),  
말뚱버섯속(Pa-  
naeolus), 독청버  
섯속(Strotharia),  
종버섯속(Cono-  
cybe)에 속하는



《검은띠말뚱버섯》

것들로서 식욕을 돋우지 못할 정도로 작고 볼품없는 버섯들이다.

환각버섯에는 실로시빈과 실로신 물질이 들어 있다. 동물실험을 통해 이 성분들이 명백한 환각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실로시빈의 경우에는 4밀리그램의 섭취만으로도 환각 상태가 되고 양이 많아지면 도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실로시빈의 중독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나타내고 또는 화를 내면서 날뛰기도 한다. 실로시빈이 가수분해되면 실로신이 되는데 이 성분은 쉽게 산화되어 청색으로 변한다. 따라서 이 버섯들을 찢어서 공기에 노출하면 청색으로 변하므로 환각물질이 있다는 것을 간단히 알 수가 있다. 다른 버섯의 경우에도 찢어서 공기에 노출했을 때 청색이 된다면 환각 물질이 있다는 것이다.

### ∴ 춤추는 버섯

실로시빈을 포함하는 버섯에는 환각버섯 이외에도 더 많은 이상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버섯들이 있다. 외국에는 그러한 버섯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처녀들이 배가 고파 버섯을 따먹었더니 웃음



《독청버섯》

과 춤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우아하게 춤을 추며 산에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났다. 처녀들은 여전히 춤을 추며, 길을 잃고 배가 고파

서 버섯을 먹고 버렸다고 나무꾼에게 얘기했다. 나무꾼도 배가 고팠던 터라 처녀들이 먹다 남김 버섯을 먹었는데 그 역시 춤을 추며 웃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이런 이상한 증상은 없어졌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버섯은 말뚥버섯으로 추측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갈황색미치광이버섯이 웃음을 나오게 하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버섯을 북한에서는 웃음독벚은갓버섯이라 하는데 아마도 이 버섯이 웃음을 나오게 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말뚥버섯을 웃음버섯, 말뚥버섯아재비를 두염웃음버섯(*Panaeolus fimicola*), 검은띠말뚥버섯을 테두리웃음버섯(*Panaeolus subbalteatus*)이라 부른다.

우리 고서에도 버섯 중독된 사람들이 미쳐 날뛰며 춤추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내가 사는 서산(西山) 남쪽에는 여성의 암자가 있는데, 갑술년 7월16일에 암자에서 우란분화(盂蘭盆會)를 베풀어 양반집 부녀자들이 많이 모였다. 여자들이 소나무 언덕에 올라가 더위를 피하다가 소나무 사이에 버섯이 많이 나 이를 탐내어 삶아 먹었다. 그런데 많이 먹은 이는 옆어져 기절해버렸고, 조금 먹은 이는 미쳐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하면서 춤을 추었으며,

혹은 슬피 울고 혹은 노하여 서로 때리기도 하였는데, 국물을 마시거나 뉘새를 맡은 이는 다만 어질어질하였을 뿐이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 것은 여러 종류의 버섯이 섞여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버섯은 같은 장소에도 여러 종류의 버섯이 발생한다. 기절한 사람은 광대버섯류를, 미쳐 소리를 지리는 사람은 신경계 중독을 일으키는 환각버섯을, 그리고 춤을 추거나 화를 내며 운 사람들은 미치광이버섯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